

즐거운 오차대의 생활

이효진(한국·계명대학교)

4 월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던 달이었다. 4 월 초, 일본에 막 온 시기였기 때문에 적응이 조금 필요했다. 날도 추웠으며 같이 놀러 나갈 친구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재미있게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정말 흥분되고 기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외롭거나 힘들지는 않았다. 일본 여행은 꽤 해봤지만 도쿄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4 월에는 역시 아직 일본에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었고 일주일만 있으면, 이틀만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다. 관광객 같은 기분이었다. 일본어로 생활하는 것도 조금 어색했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했다. 적응이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생활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5 월은 나름대로 바빴다. 5 월에는 골든 위크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일본에 대해 즐기게 되었던 시기였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시부야, 하라주쿠, 신주쿠를 돌아다니면서 처음으로 프리쿠라를 찍어보고, 일본의 카라오케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일본의 맛있는 디저트와 밥을 먹으면서 관광객과는 다르게 좀 더 유학생처럼 일본을 즐겼다. 일본에 온지 한달 정도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본에 익숙해졌다. 일본 유학생살을 좀 더 풍족하고 여유롭게 즐기기 위해서, 또한 일본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취직활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한가지의 경험으로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원한 곳에서 퇴짜를 맞기도 했지만 정말 일하고 싶었던 로프트에서 면접이 잡히고 채용이 되면서 내 계획대로 일본에서의 생활이 잘 흘러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가보기 위해서 약속을 많이 잡았었다. 아사쿠사의 산자마츠리던가 도쿄대의 축제라던가 마츠리의 계절이 시작됨에 따라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츠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항상 학교에서만 배웠었고, 인터넷에서만 봤었던 마츠리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볼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유카타를 사는 등 제대로 즐기기 위해 했던 일들이 많았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한국에 대해서 그리워져 친구와 함께 신오오쿠보에 가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식 재료를 사는 등 일본 속에서 한국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도 하였다. 또한 과제 덕에 생전 관심 없던, 과제가 아니었으면 갈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도쿄의 마을을 가보게 되었고 그 마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와 무엇이 있는지, 뭐가 유명한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6월은 일본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태해진 느낌이 드는 달이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주말에 공부할 시간과 과제를 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조금 대충하는 경향이 생겼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날이면 놀러 다니거나 빈둥빈둥 거렸다. 하지만 5 월처럼 많이 놀러 다니지는 못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일은 그다지 없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사고 싶었던 카메라를 사거나 일본의 옷을 사거나, 정말 부자처럼 돈을 펑펑 썼다. 생활비가 아까워 먹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귀찮아서 사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살이 좀 찼다. 일본 생활에 대해서는 익숙해졌지만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신입이었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컸었다.

7 월은 장마로 인해서 조금 나른해졌다. 또한 학교에서 행해진 칠월 칠석 축제에도 참가를 했다. 거기서 유카타를 처음 입었다. 나름 맛있는 음식도 많았다. 이벤트도 좋았다. 이러한 행사를 좀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 꽤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다.

